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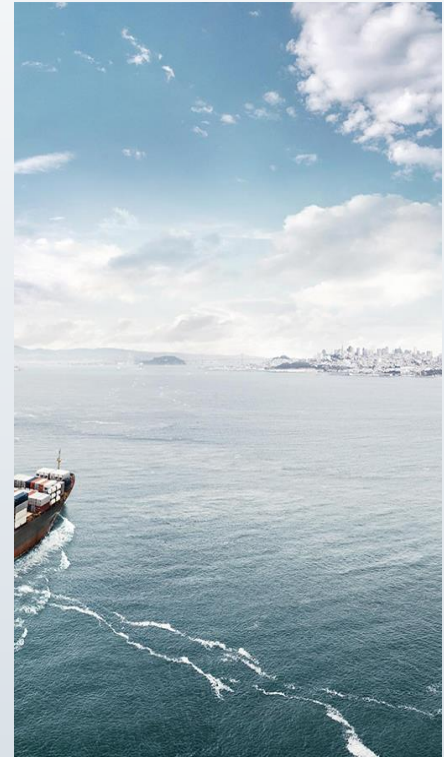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37

Updated February 26,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5
- BC Sales Report	
Tankers	9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3
Key Indicators	16
STL News & Information	18
Contact Information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양강체제는 선박 건조가격 상승동력

조선업계가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의 '빅 2'체제로 개편을 앞두고면서 선박 건조가격을 놓고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 일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이를 계기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조선 3사는 불황에 따른 수주 가뭄에 시달리면서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빅 2 체제로 바뀌면 경쟁 강도가 완화하는 만큼 건조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인수 이후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 두 업계 공룡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선박 건조가격을 끌어올리기 충분할 것"이라며 "이미 선박을 인도받은 선주들은 이득을 봤지만 이제 발주를 준비하는 선사들은 앞으로 배를 짓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박 건조가격은 불황으로 곤두박질했다가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호황기와 비교하면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특히 조선 3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LNG 운반선 건조가격이 관건이다

영국 조선해운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LNG 운반선 평균 건조가격은 2011 년 2 억 달러를 넘었으나 2015 년 1 억 9,900 만 달러, 2016 년 1 억 9,700 만 달러로 내렸고 2017 년과 2018 년에는 1 억 8,200 만 달러로 푹 떨어졌다. 올해 1 월은 1 억 8,400 만 달러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조선 3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 가격 상승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21 일 수주한 LNG 운반선 4 척은 척당 1 억 9,300 만 달러로 클락슨이 제시한 1 월 평균가격보다 5%가량 높다. 다만 이는 배가 높은 사양으로 발주된 데다 기존보다 늦은 인도 예정일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조선 3사의 한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나이지리아 등 LNG 수출국들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LNG 운반선 발주량은 최소 지난해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발주량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선박 건조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LNG 운반선 발주량을 69 척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4 척 많지만 큰 폭의 증가로는 보기 어렵다. 발주량보다는 건조가격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I . ISSUE & TREND

배세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내 조선사들이 선박 발주량 측면에서는 놀랄 만한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건조가격 상승이야말로 향후 실적 개선의 열쇠"라며 "특히 LNG 운반선은 수익성이 다른 배들보다 높기 때문에 건조가격이 오르면 실적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조선 3 사의 또 다른 주력 분야이자 고부가가치 선종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도 주목된다. 올해 1 월 기준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평균 건조가격은 9,300 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8 년 9,250 만 달러보다 0.5%, 2017 년 8,150 만 달러보다는 14%가량 비싸졌다.

2. 공격적 짝짓기 나선 중국 조선업, 내년 10 대 메이저로 재편될 듯

중국 조선회사들이 주문받아 놓은 전체 물량은 여전히 1 위다. IHS 마킷의 조선산업 수석 연구원인 달리보 고직에 따르면 중국이 확보한 주문은 5,988 만 T 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약 4,553 만 T 정도다. 중국 조선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선주들의 주문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런던에 머물고 있는 고직은 중앙 SUNDAY 와 통화에서 "중국 조선회사들도 임금이 오르는 등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는 한국 조선회사들엔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조선회사들의 합병이 활발하다. 영국 클락슨에 따르면 연간 한 척 이상을 만들어낸 중국 조선소는 2014 년 244 곳에 달했다. 하지만 2106 년엔 117 곳으로 줄었다. 2 년 정도 사이에 조선소가 50% 넘게 줄었다. IHS 마킷의 이대진 수석 연구원은 "중국 조선소간 합병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짝짓기라기보다는 주문을 받지 못한 회사들이 흡수당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강점을 지닌 벌크선 분야에서 그들의 경쟁 상대는 한국이라기보다는 일본이다. 일본은 대형 석탄이나 철광석 운반선 건조에 기술적인 우위를 자랑한다. 이런 일본과 경쟁에서 중국 군소 조선회사들이 부실해졌다.

중국 정부는 합병을 더욱 밀어붙일 태세다. 중국 정보기술산업부(MIIT)는 내년까지 메이저 10 개 조선회사가 선박건조의 70%를 담당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 조선회사의 덩치가 커지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 고직은 "중국 조선회사들도 규모를 키우면서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회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액화천연가스(LNG)선 분야에서도 몇 년 뒤엔 한국과 경쟁할 수 있을 듯하다. 고직은 "그날이 오면 한국 회사들이 중국을 상대로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 . ISSUE & TREND

다만, 중국 조선업 미래에서도 미·중 무역협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하버드대의 미루토 칼룸치디 교수가 지난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고용 유지를 위해 지급한 보조금 때문에 조선회사들의 원가가 한때 13~20% 정도 낮아졌다. 그런데 미국이 보조금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국 선박 건조 비용이 보조금 삭감만큼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구조가 단순한 벌크선을 만드는 데 특화돼 있어, 보조금 삭감 뒤에도 한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며 “한국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벌크선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 '해운재건계획 수립 1년' 중소선사에 7,300 억 지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현대상선을 제외한 중소선사 32 곳에 총 7,301 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규모를 분야별로 보면 선박 투자 6,113 억원, 경영안정자금 1,188 억원이다. 지원을 받는 선사 수는 컨테이너선사 9 곳, 부정기선사 23 곳 등 총 32 곳이다.

정부는 중소선사들의 선박 확보에 2872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척수로 따져 34 척에 이른다. 컨테이너선 13 척 433 억원, 부정기선 21 척 2,439 억원이다. 노후선을 저비용 고효율 선박으로 교체하는 비용의 10%를 보전해주거나 신조선 비용을 투자 또는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295 억원의 폐선보조금 예산을 확보해 8개 선사가 10 척의 노후선을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5 척 규모인 85 억원이 폐선보조금 예산으로 책정됐다.

친환경 설비 설치엔 3,241 억원이 지원된다.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2,979 억원,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 262 억원이다. 컨테이너선이 750 억원, 부정기선이 2,491 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 설비를 달게 된다. 스크러버의 경우 컨테이너선 23 척, 부정기선 67 척이 설치를 확정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세일앤드리스백(S&LB, 선박 매각 후 채용선)과 컨테이너박스 담보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이 실행된다. 해수부는 S&LB 지원사업으로 1,081 억원(13 척), 컨테이너 박스 담보대출로 107 억원을 중소선사에 공급한다고 말했다. S&LB 를 이용하는 선박은 컨테이너선 3 척, 부정기선 10 척이다. 지원 금액은 각각 287 억원 794 억원이다.

I . ISSUE & TREND

염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 해운업체의 대다수인 중소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해운 재건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 한진중영도조선소, 국립대 실습선 4 척 공동명명식

한진중공업이 국립대 실습선 4 척을 동시에 명명하는 공동명명식 행사를 가졌다.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21 일 오후 2 시 영도조선소에서 공동명명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 박백범 차관과 박지원 의원, 군산대 광병선 총장, 목포해양대 박성현 총장, 전남대 정병석 총장, 한국해양대 박한일 총장, 한국해사기술 신홍섭 사장, 한국선급 이정기 회장과 한진중공업 이윤희 사장을 비롯한 조선소 관계자 200 여명이 참석했다.

실습선은 항해 및 기관실습 등 각종 교육, 훈련을 위한 실습 항해가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실습선 승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 대학의 기존 실습선 대부분이 선령 20 년이 넘는 노후선박이라 그간 학생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대학과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의 부단한 노력 끝에 노후 실습선 대체를 위한 신형 실습선 건조사업이 추진됐고, 지난 2015 년 발주된 5 척을 한진중공업이 수주해 건조를 진행해 왔다. 신형 실습선은 총톤수 8,000 톤급 2 척과 2,000 톤급 3 척을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최첨단 선박이다.

특히 해운회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동급 수준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게 돼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의 국적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비롯한 부경대 탐사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5,200 톤급 실습선, 세계 최초 LNG 병커링선 등을 건조해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진중공업은 금번에 국립대 실습선 4 척을 동시에 명명하는 행사를 거행하면서 특수목적선 건조의 명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진중공업 측은 “신형 실습선은 복원성과 안전성 강화 설계가 적용된 최신행 실습선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첨단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운항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우수한 성능의 고품질 실습선을 건조해 국내 해양·수산 인력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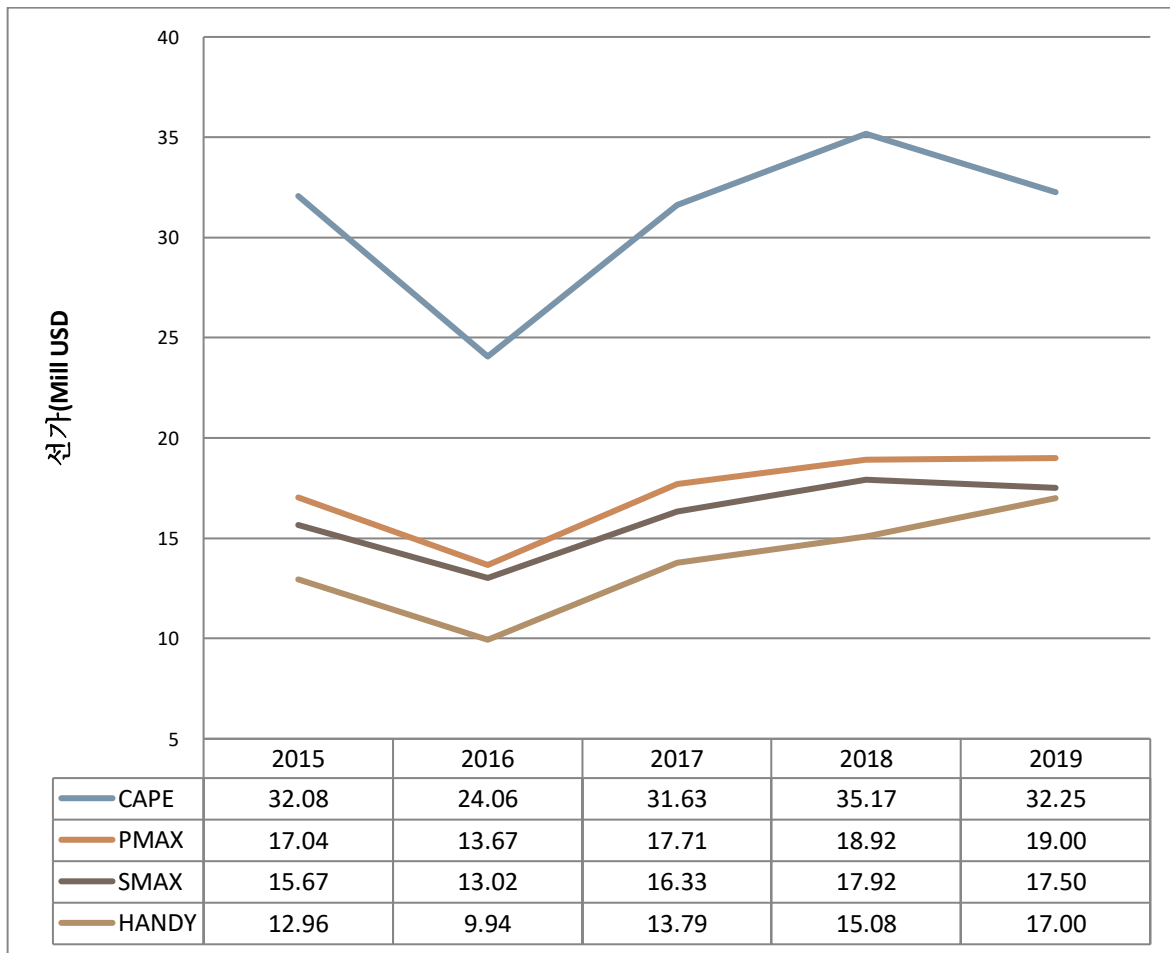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2.25
	-31.45%	-24.99%	31.43%	11.20%	-8.30%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50
	-36.04%	-16.91%	25.44%	9.69%	-2.34%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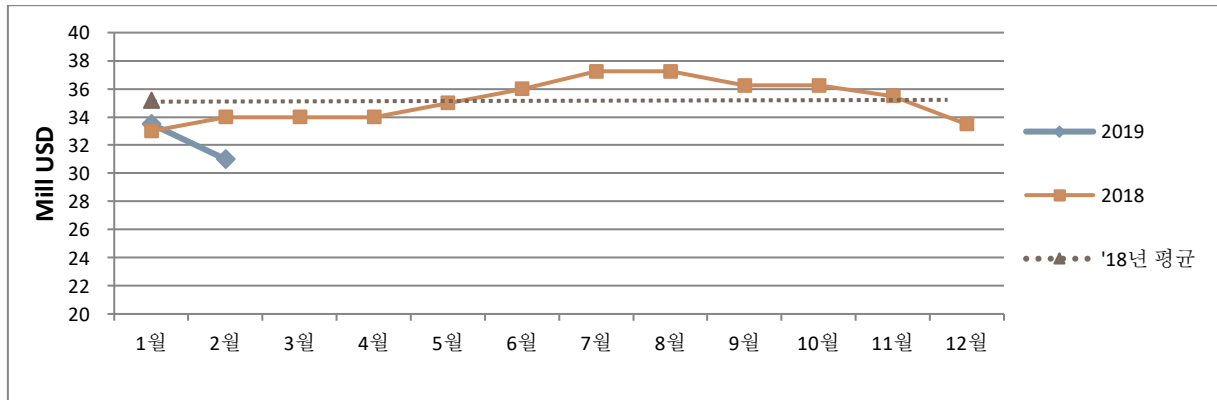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2.25
		전월대비	0.0%	-7.5%					-
		전년대비	1.5%	-8.8%					-8.3%
	PMAx 76k	선가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
		전년대비	2.7%	2.7%					0.4%
	SMAx 58k	선가	18.00	17.00					17.50
		전월대비	0.0%	-5.6%					-
		전년대비	2.9%	-2.9%					-2.3%
	HA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전월대비	13.3%	0.0%					-
		전년대비	21.4%	21.4%					12.7%
2018	CAPE	33.00	34.00	34.00	34.00	35.00	36.00	35.17	
	PMAx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8.92	
	SMAx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7.92	
	HANDY	14.00	14.00	15.00	15.50	15.50	16.00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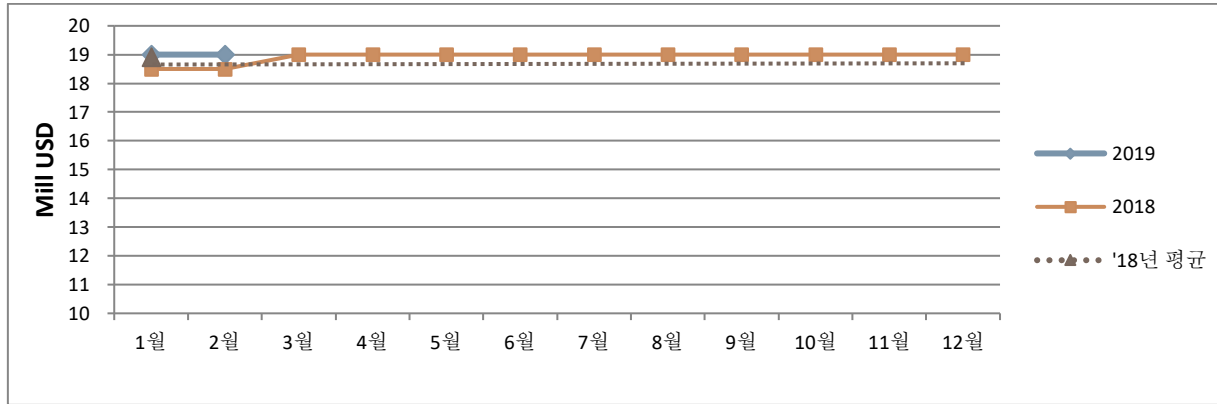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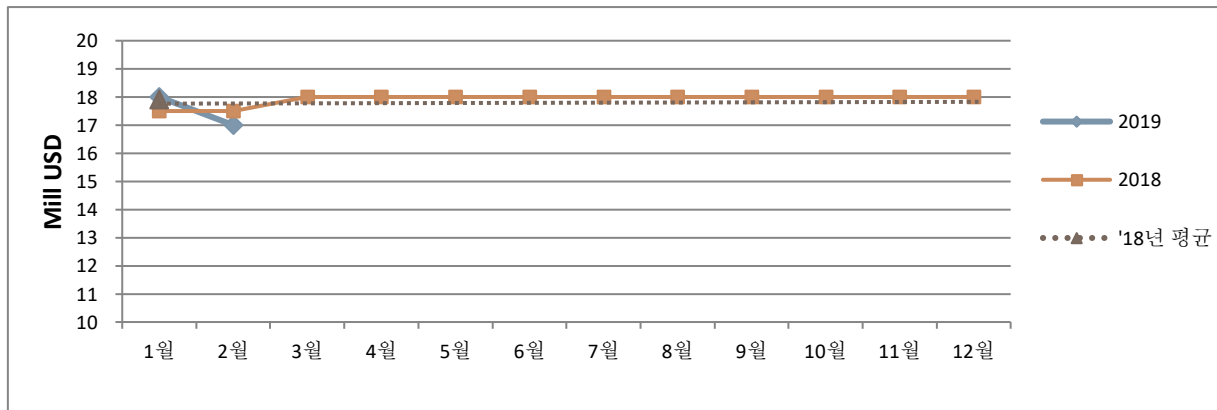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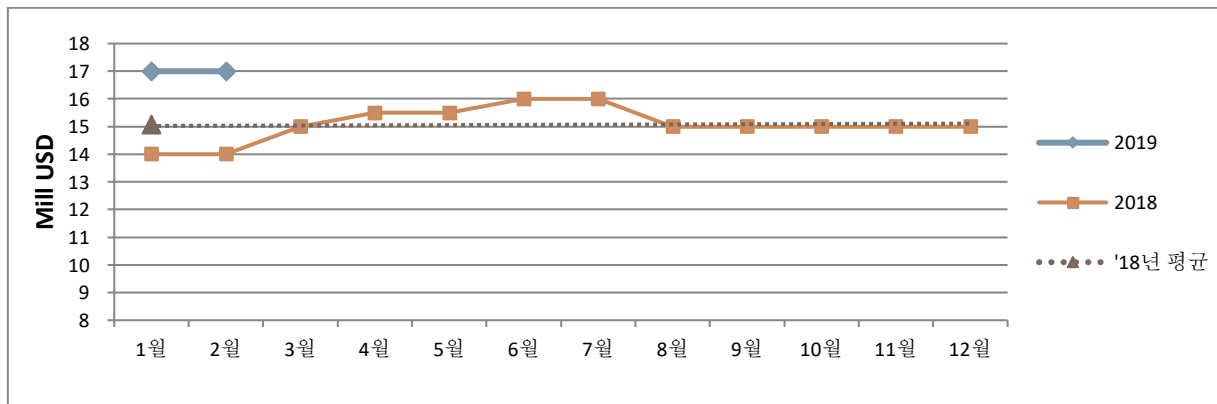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CALHOUN	76,801	2006	JAPAN	B&W		10.8	Ukraine buyer
BC	IKAN BILIS	75,729	2004	JAPAN	B&W		high 7	Undisclosed buyer
BC	DIONE	75,172	2001	KOREA	B&W		7.2	Greek buyer (internal)
BC	DANAE	75,106	2001	KOREA	B&W		7.2	F.Eastern buyer Including 2 yrs TC Back
BC	LOCH NESS	61,272	2016	JAPAN	B&W	C 4x30.7t	23	Undisclosed buyer
BC	AFRICAN LOON	61,255	2016	JAPAN	B&W	C 4x30.7t	22.6	Greek buyer
BC	NAVIOS MERIDIAN	50,316	2002	JAPAN	B&W	C 4x30.5t	7.1	Chinese buyer
BC	NORD MUMBAI	36,612	2012	VIETNAM (KOR)	B&W	C 4x30t	12.5	Greek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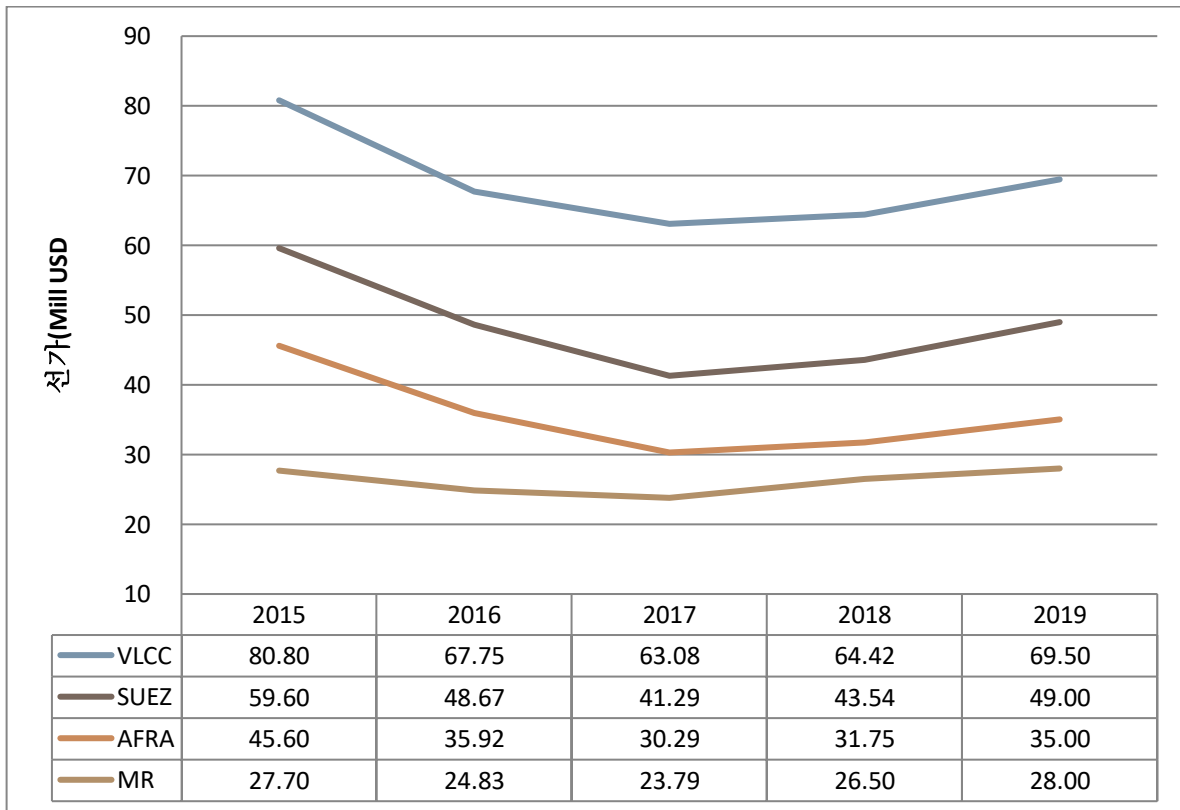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69.50
	9.04%	-16.15%	-6.89%	2.11%	7.89%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49.00
	17.32%	-18.34%	-15.15%	5.45%	12.54%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5.00
	17.83%	-21.24%	-15.66%	4.81%	10.24%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00
	2.97%	-10.35%	-4.19%	11.38%	5.66%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1.13
	-3.08%	10.45%	-10.78%	-5.20%	-5.48%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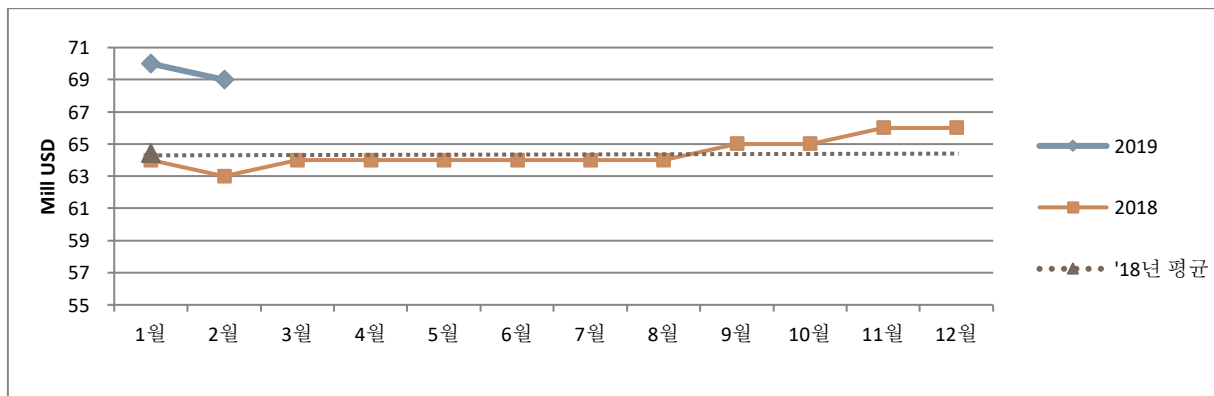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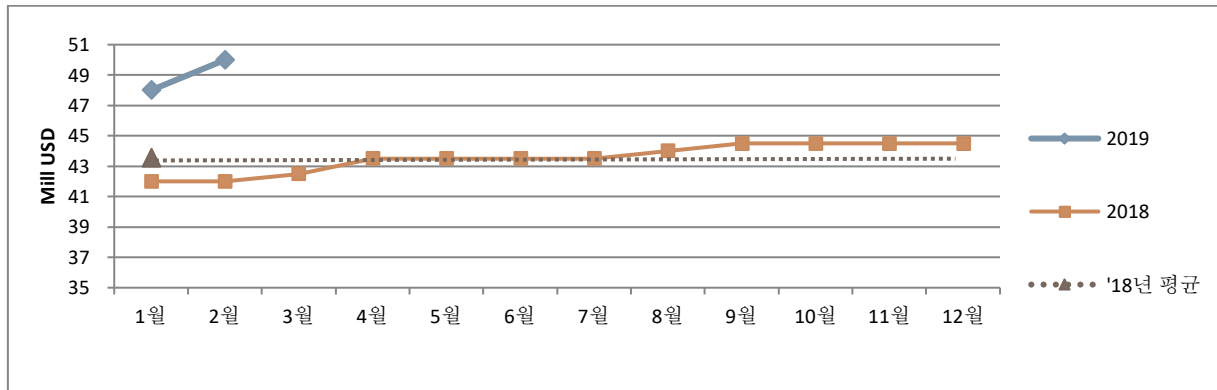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70.00	69.00				69.50
		전월대비	6.1%	-1.4%				-
		전년대비	9.4%	9.5%				7.9%
	SUEZ 160K	선가	48.00	50.00				49.00
		전월대비	7.9%	4.2%				-
		전년대비	14.3%	19.0%				12.5%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전월대비	6.1%	0.0%				-
		전년대비	9.4%	16.7%				10.2%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전월대비	1.8%	0.0%				-
		전년대비	12.0%	12.0%				5.7%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13	
	전월대비	0.0%	2.3%				-	
	전년대비	-15.4%	-10.0%				-5.5%	
2017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42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4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1.75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50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77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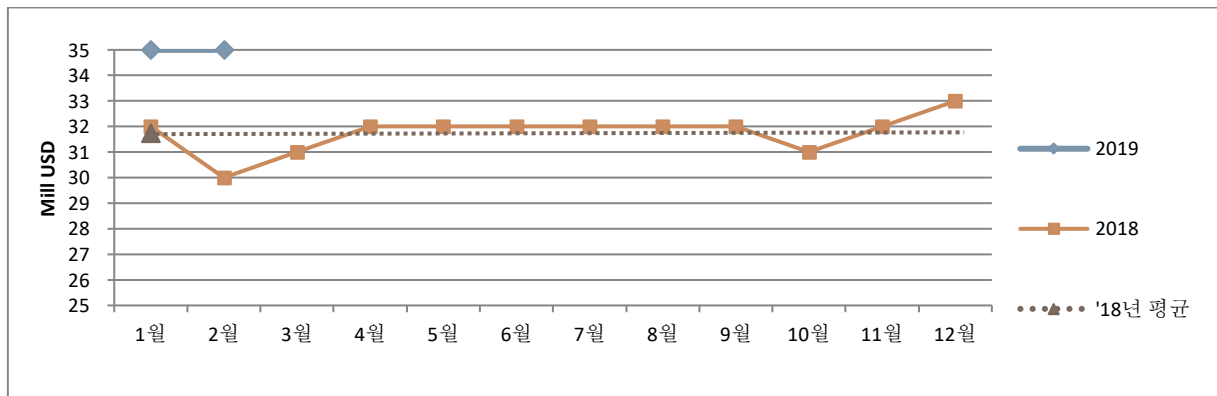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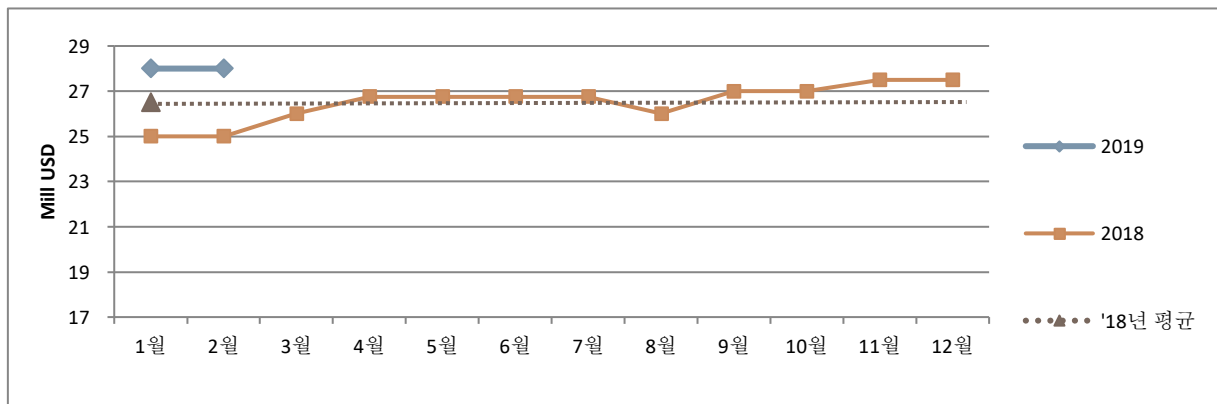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GENMAR COMPATRIOT	72,700	2004	CHINA	B&W		6.8	Greek buyer
TANKER	HIGH STRENGTH	46,592	2009	JAPAN	B&W		16.4	Undisclosed buyer
OIL/ CHEM	LAVELA	40,099	2010	KOREA	B&W	3	14.8	Italy buyer (Socoma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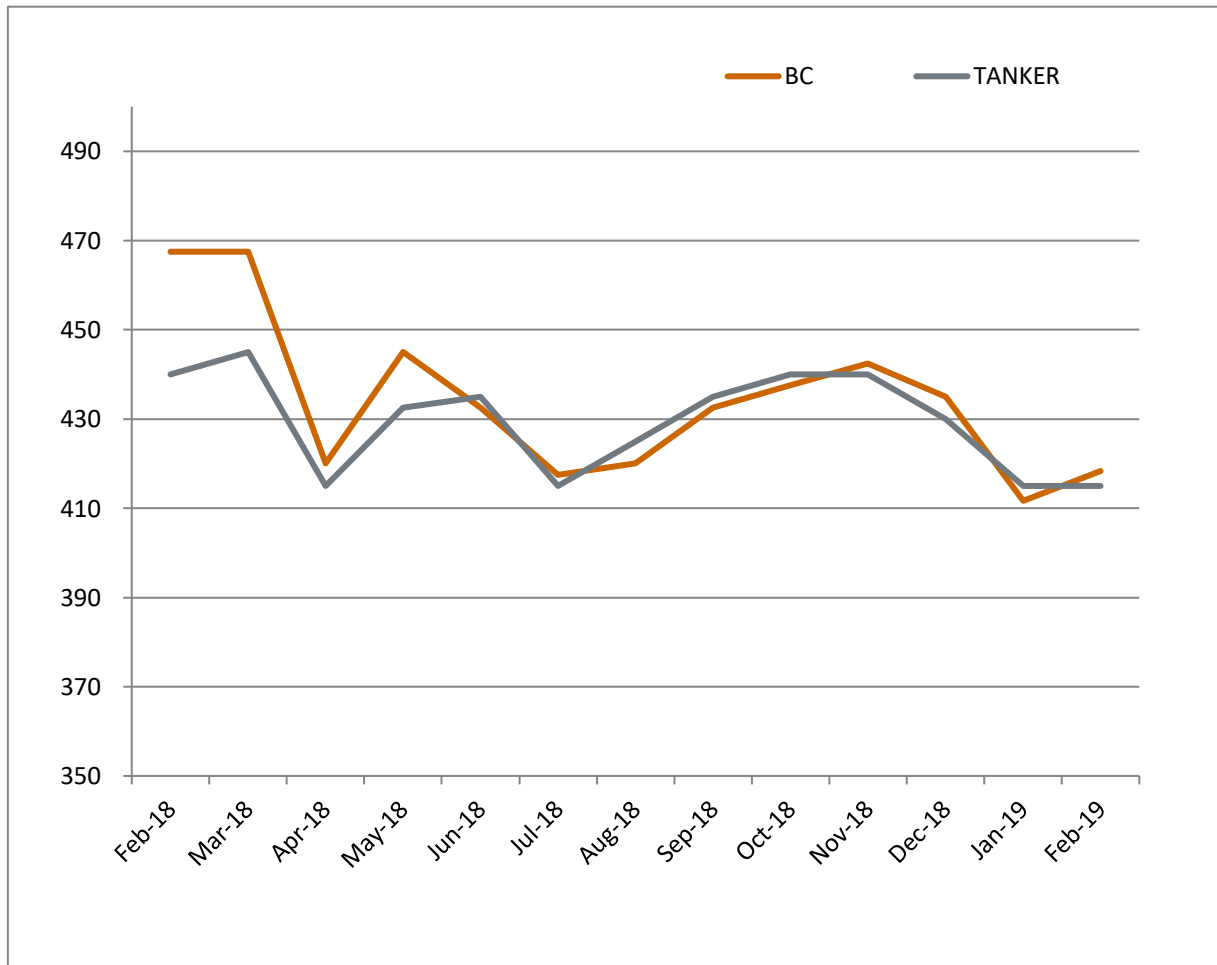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2 월	2019 년 2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15.00	-4.1%	440.00	415.00	0.0%	-5.7%
BC	370.83	38.5%	440.63	18.8%	415.00	-5.8%	467.50	418.33	1.6%	-10.5%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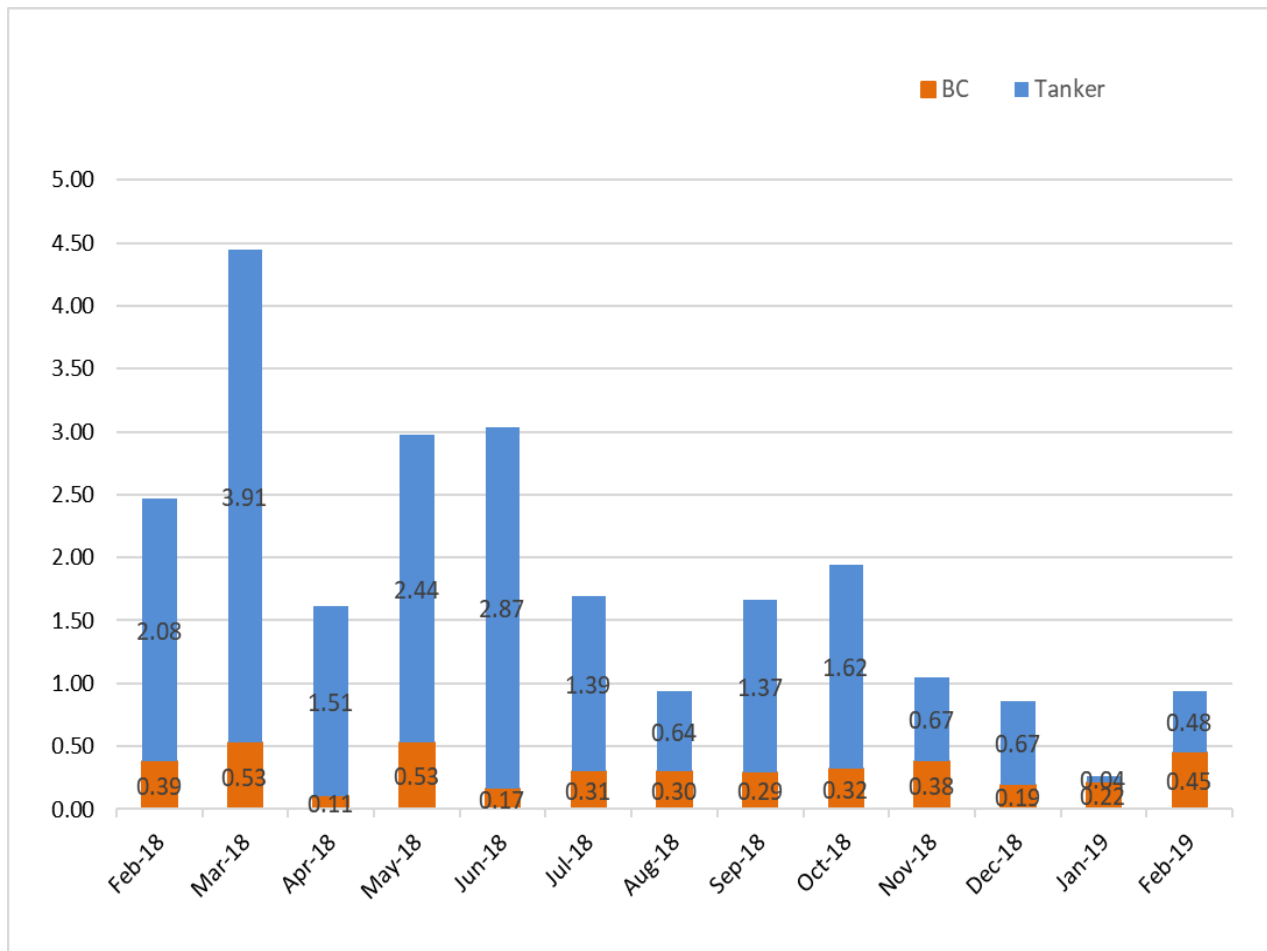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2 월		2019 년 2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0.53	2.5%	9	4.6%	2.08	17	0.48	-76.8%	5	-70.6%
BC	4.20	112	0.67	15.9%	10	8.9%	0.39	8	0.45	17.4%	5	-37.5%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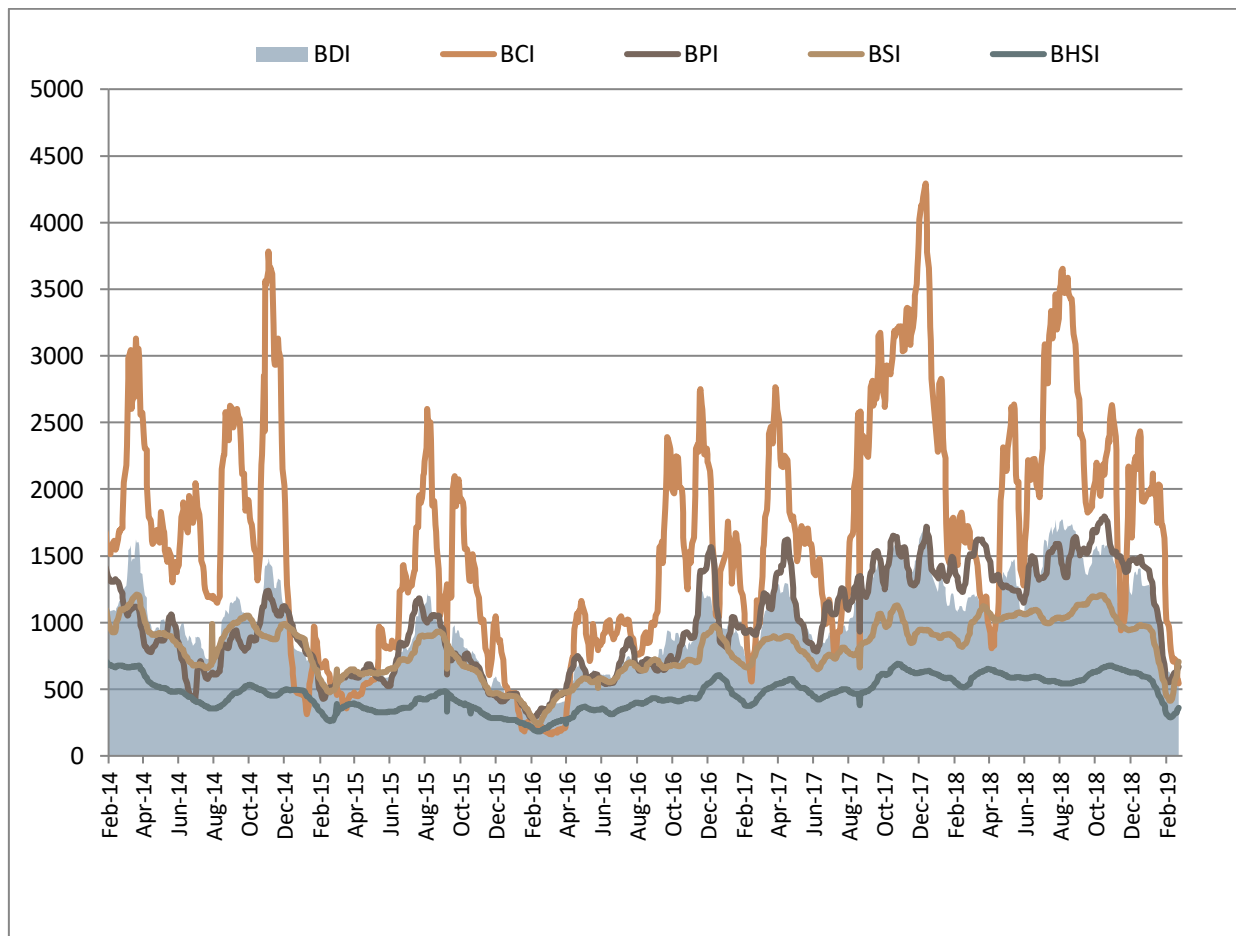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STAR AURORA	171,199	21,018	2000	JAPAN	B&W	430	AS IS Singapore
CONT	LAL BAHADUR SHASTRI	28,965	8,422	1993	KOREA	B&W	417	AS IS Colombo
CEMENT	DARYA JAAN	18,649	5,396	1982	JAPAN	B&W	417	BANGLADESH
TANKER	PICOLO	13,845	4,400	1982	DENMARK	B&W	-	PAKISTAN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02-22	2019-02-15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634	639	▼-5.00	1774	290
BCI	545	727	▼-182.00	4293	161
BPI	666	624	▲42.00	1796	282
BSI	707	560	▲147.00	1209	243
BHSI	359	315	▲44.00	690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30.00	▲2.50	401.00	▲4.00	430.00	▼-4.00
IFO180	455.50	▲8.00	433.00	▲13.50	486.00	▼-10.50
MGO	597.50	▲21.00	552.50	▲24.50	642.50	▲0.00
LSMGO	609.00	▲12.00	574.50	▼-0.50	-	-

❖기준일 : 2 월 22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02-22	2019-02-15	CHANGE
미국 달러	1124.40	1125.00	▼-0.60
일본 엔(100)	1015.95	1018.05	▼-2.10
유로	1274.45	1270.97	▲3.48
중국 위안	167.65	166.06	▲1.59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 2 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0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질 예정인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8년 6·12 1차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지 8개월여 만에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5일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공식화한 데 이어, 2월 8일 트위터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70여년간 적대 관계를 지속한 양국이 역사적인 첫 대면을 이루고 비핵화 협상의 토대를 구축했다면,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관련기사 "'싱가포르 합의가 결실로'...미리 보는 하노이공동성명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4가지 원칙을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미 두 정상이 서명할 하노이 공동성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하노이 공동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회담 때 마련했던 4개 조항에 각각 3~4개의 세부 내용이 붙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달 초 평양을 방문했을 때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방미한 대표단에게 전했다.

가장 관심을 받는 비핵화 조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동결 약속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의 전문가 참관 아래 해체 그리고 북한 핵의 핵심인 영변핵시설 동결(freeze)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포기(폐기)를 목적으로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봉인, 폐쇄(shut down·출입통제),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동결은 대북 협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보통 핵무기를 만드는 공정

VI. STL NEWS & INFORMATION

자체로 보면 핵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핵동결 자체가 핵무기 증가를 막는 실질적 조치인 셈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경제 번영'이라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유인책으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수차례 언급했다.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증진한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 기업들의 투자 답사 허용,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나올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 유예와 제재 관련 사항은 선언문에는 담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따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엽 교수는 "미국이 가진 국제적 지위와 외교적 결례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금강산 관광 제한적 재개, 남북 철도 연결사업 등과 관련한 제재 유예나 면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파격적인 '빅딜'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 22 일(현지시간) 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은 의제의 99%가 사전에 실무급에서 논의되지만 북미정상회담은 논의 정도가 "30% 혹은 그 이하"라고 평가했다.

[출처: NEWS 1, 2019.02.26]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Sally Kim (김윤희 사원)
 Tel. 070-7771-6403
 Mob. 010-3161-5964
 snp@stlkorea.com
 sally@stlkorea.com (Personal)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과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 070-4800-0153)
 |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 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